

■ 1964년 개관 제주 근대건축사 상징 건물 '제주시민회관' 해체

“원도심 건물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깁니다”

생활SOC복합화 시설로 조성... 2026년 준공 목표
철골구조 복원 신축 공간에 기록화 작업 상설 전시

건물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붙잡았다. 제주시 원도심 건축물이 하나 둘 허물어지는 때에 그것은 남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온다. 15일 지붕 해체 작업을 시작으로 생활SOC복합화시설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이도1동의 제주시민회관이다.

1964년 7월 3일 남문로 옛 오일장 터에 문을 연 시민회관은 부지 3096㎡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체육관, 영화관, 공연장 등으로 애용됐다. 지금은 여가를 즐길 인파가 넘쳐나지만 80년대 중반까지도 시민회관은 제주의 대표적인 교육·문화·체육 시설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낡았다는 이유로 시민회관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 때마다 도민들의 이목이 쏠렸다.

특히 김태식이 설계한 시민회관은 제주 최초의 철골 구조물이다. 1960년대 제주에서 규모의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 충분치 않은 시절에 넓은 실내를 확보하기 위해 철골 트러스 구조를 설치하는 등 제주 근대건축에서 건축 기술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 받는다.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 8월 이후 운영을 멈췄던 시민회관은 이

년부터 본격적인 건축물 해체가 이뤄진다. 지난 2월 제주도 건축해체 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핵심인 철골 트러스 해체 순서를 변경하는 등 3개월 동안 철거 작업을 벌인 뒤 올해는 지하 터파기,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을 이어간다. 내년에는 건축물 골조 공사, 2025년에는 내·외부 마감 공사 등이 계획됐다.

작공 60년 만에, 개관 기준 59년 만에 해체돼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둔 복합화시설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1042㎡ 규모로 총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시설에는 주차장,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과정에 제주시는 시민회관이 지닌 역사적, 공간적, 건축적 가치를 고려해 철골 트러스 보존을 전제로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담은 설계 지침을 제시했다. 철거와 동시에 그 기억까지 묻히는 어느 건축물과 달리 지난해 4월부터 시민회관 역사 기록화 용역도 진행했다.

이는 장차 복합화시설에 그대로 깃든다. 해체 시 인양하는 철골 트러스 대부분을 신축 공간의 중정에 재설치 또는 복원함으로써 시민회관의 기억과 상징성을 살릴 계획이다. 5층에는 50㎡ 크기의 역사기록



낙하물 방지망이 씌워진 제주시민회관(사진 맨 위)과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붕 해체 작업(사진 아래 왼쪽). 1964년 7월 열린 제주시민회관 현판식(사진 아래 오른쪽). 1964년 문을 연 시민회관이 기억을 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상국기자

실을 따로 두고 건축물의 연혁, 옛 사진, 건축가 김태식 재조명, 지역 주민 인터뷰, 시민회관 내·외부 물품 등을 정리한 기록화 용역 결과물을 상설 전시하기로 했다.

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시설 설계·디자인을 맡은 고평표 건축가는 “시민회관은 오랜 기간 제주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역사적인 장소”라며 “복합화시설은 기존 시민회관의 건축 공간을 재현하고 그곳에서 행해졌던 행사를 영상, 기록물 등으로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위치 추적기’ 달려있는 줄 몰랐지?

과수원서 농자재 훔쳐 고물상에 판 절도범 탈미

피해자 “이전에 도난 경험 추적기 부착 절도피해 대비”

과수원에서 훔친 농자재를 고물상에 판매한 절도범이 농자재 도난 예방을 위해 보급된 위치 추적기에 탈미를 잡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과수원에서 농자재 파이프 1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과수원으로부터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파이프를 도난 추적에 나서 신고 접수 30분 만에 제주시의 한 고물상에서 파이프와

버려진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과수원은 지난 2월에도 보관 중이던 방풍용 시설 파이프 35개를 도난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과수원 관계자는 농협을 통해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기를 구입해 농자재에 부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추적기는 서부경찰서와 농협이 협업해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서부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부지역 61개 리사무소에 312대의 위치 추적기가 보급됐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음주운전 재판 앞둔 20대 만취 사망사고

횡단보도서 행인 쳐... 법원 “죄책 너무 커, 징역 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앞둔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6%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교육청, 지역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예술단을 오케스트라로 창단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일정 기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적이 있는 음악인을 전국에 걸쳐 공모하기 때문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채용 공고를 낸 장애인예술단 지휘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음악

또는 지휘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공공기관이나 법인에 소속된 오케스트라에서 3년 이상 지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자격자가 있을 경우 6월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지휘자 선발 후 하반기에는 7~10명의 단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김광수 교육감 임기 동안 30명 이상의 단원으로 정식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안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이 청사 부속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시 오라2동의 한 건물을 임차한 이른바 오라청사 1층에는 장애인예술단 사무실과 연습 공간도 들어섰다. 전선희기자

흥기 휘두른 60대 체포

새벽시간 길거리에서 흥기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취 임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회장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영화
(거로 28세)

연주현씨 거로파 유향별감기 봉 공 계친족회 친족 일동
연주현씨 거로파 통정대부 선공감참봉 치적공계친족회 친족 일동
연주현씨 거로파 유향별감득 유 공 계친족회 친족 일동